

전국무용제



대상을 차지한 광주 현대무용단의 <레밍, 탄>

경연대회가 갖는 맹점 여실히 드러나

박성혜 | 무용평론가

각 지역에서 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제14회 전국무용제>가 제주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번 무용제에서도 어김없이 화려함이나 정성스러움의 정도가 심사기준이었다. '경연용 작품'에 대한 전면적 비판과 수정을 통해 전국무용제의 권위와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다.



올 해로 14회를 맞이한 전국무용제가 지난 9월 5일부터 13일 동안 제주에서 거행되었다. 서울을 제외한 직할시와 각 도의 대표로 출전한 15개의 단체가 경합을 벌인 이번 행사에서는 광주현대무용단의 이숙영 안무 〈레밍, 턴〉이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금상(문화관광부장관상)에는 대전 최영란무용단의 〈천년가약〉과 충북 김진미무용단의 〈아이가〉(행정자치부장관상)이 차지했으며, 은상은 제주 강지희무용단 〈불휘〉, 경북 김동은무용단 〈마지막 비상구〉, 경기 광명조대식무용단 〈남아있는 내일〉, 전남 송춘무용단 〈그리운 연리지〉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개인상 부문에서는 안무상에 최영란(대전), 최우수 연기상에 전정환(대전) 연기상에 김진미(충북) 조대식(경기) 이경화(광주) 이선민(대구) 고희숙(제주), 무대기술상에 이나구(인천)에게 돌아갔다.

8일 동안 경연의 형식으로 거행된 이번 행사는 그 동안 무용공연 행사가 빈번하지 못했던 제주에서 모처럼 열리는 중요 무용 관련 행사라는 점에서 일반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무용제는 그 동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무용공연에서 벗어나 문화적으로 소외 받던 각 지역에서 보다 수준 높고 정성어린 공연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올해 거행된 제주의 전국무용제에 보인 제주 지역 주민의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 참여는 그간 제주지역의 열악한 무용 공연 풍토를 역설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동시에 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수권에 대한 긍정적 대응과 해결로서 전국무용제가 한 몫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국무용제는 이전에도 지적되어 오던 몇몇의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 중에서 필자는 국내에서만 독특하게 보이는 무용공연 경연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경연의 기준이 예술적 기준과 과연 일치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아가 전국무용제의 위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말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경연용 작품에 관하여

멀쩡하게 공연 잘 하던 안무가가 갑자기 경연에 임하는 작품을 안무하게 되면 이렇게 말한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경연용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경연용이라, 그냥 작품을 만들면 되지 작품을 경연용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경연용이란 무엇일까? 그간 완성된 하나의 작품을 놓고 등수를 매기는 다양한 경연대회를 나름대로 관찰한 결과, 필자가 얻은 경연용 작품들의 특징을 보면 대략 이리하다.

우선 기승전결이 분명한 이야기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관객의 눈에 확연히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이야기가 모호하거나 복잡하면 안 된다. 이야기 없이 추상적이거나 지나친 실험은 안 된다. 당연히 해프닝은 더더욱 안 된다. 그냥 권선징악, 혹은 현대 문명비판, 여인의 운명이 어찌구 저찌구하

경연 심사에서 새로운 형식의 제안이나 움직임 자체에 대한 탐구, 새로운 실험과 도전, 그리고 안무가의 감수성과 감각, 세계관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다. 세계관이 좀 미천하더라도 무대가 정성 가득하고 엄청나게 투자하면, 그 정성에 탄복했으니 상 줄만 하다고 생각한다.

The 14th Korean Dance Festival in JeJu



면 된다. 절대로 복잡하면 안 된다. 여기에 소재의 신선함이 약간 가미되면 더더욱 좋다. 잊혀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다른 안무가가 다루지 않은 소재면 그야말로 완벽하다. 물론 그러한 소재를 얻으려면 약간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소재로 매끈하게 기승전결 양식에 맞춰 잘 뽑아내면 된다. 덕분에 출연진들은 나름대로의 명확한 캐릭터로 작품에 존재한다. 남자이거나 혹은 여자로서 항상 성(性)이 분명하며 작품 줄거리의 한 인물일 뿐이다. 그리고 해당 캐릭터를 몸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 다음 볼거리가 많아야 한다. 화려한 무대와 현란한 테크닉들이 무대를 가득 메울수록 점수는 올라간다. 덕분에 처음 시도하는 조명, 혹은 영상은 필수요, 의상 역시 화려해야 한다. 물론 무용수들이 의상을 자주 갈아입으면 역시 점수는 올라간다. 여기에 무대가 돌아가고 배경이 자주 바뀌거나 화려한 소품

들과 무대미술로 무대 위의 분위기가 짹짹 바뀌어지면, 역시 점수는 그 횟수만큼 상승한다. 물론 화려한 테크닉은 필수다. 연기상을 노리는 무용수들이 혼신을 다해 뛰고 돌면 그 높이와 횟수만큼 비례해서 점수는 역시 또 올라간다.

음악은 철저하게 작품을 설명해 주고 있어야 한다. 주인공이 슬프면 절절히 애잔한 음악을 틀고 갈등이나 대결 구조에서는 긴장감 넘치는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다. 물론 무용수들은 음악에 맞추어 춤춰야 한다. 여기에 극적인 효과음이 적절하게 가미되면 더욱 좋다. 이런 기준에 누가 제일 잘 맞추어 작품을 만드느냐가 경연 심사의 판단의 기준이요, 바로 등수로 직결된다. 새로운 형식의 제안이나 움직임 자체에 대한 탐구, 새로운 실험과 도전, 그리고 안무가의 감수성과 감각, 더욱이 안무가의 세계관은 더더욱 중요하지 않다. 세계관이 좀 미천하더라도 무대가 정성 가득하고 엄청나게 투자하면, 그 열정, 그 정성, 그 기특함에 탄복했으니 상 줄만 하다고 생각한다.

정성과 열정이 예술의 절대적 척도가 절대 될 수 없음은 분명히 알면서 유달리 경연에만 되면 달라진다. 아마도 주관적 가치 기준에 의해 평가되는 예술인지라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을 것이요, 또 설혹 심사 후 자기 합리화하기에 쉬운 기준이라 그러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 위에서 언급한 것들이 훌륭한 예술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연 심사 때만 되면 어김없이 화려함의 정도, 정성스러움의 정도가 기

준이 된다. 그야말로 춤을 단순한 수공사업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논쟁 없는 심사

이상하게도 경연의 심사에서 가장 꺼리는 것이 토론이다. 토론 없는 심사라……. 얼른 상상이 안가겠지만 국내에서 거행되는 경연 심사에는 진짜 토론이 없다. 예술감상의 즐거움 중 하나가 감상 후 토론인데, 전국무용제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그 이유로는 논의가 되면 부정적으로 평한 작품의 안무가와 관계가 이상해진다는 것과 논의가 이상하게 밖으로 와전되어 경연 후 수많은 구설수에 오른다는 것이다. 속된 말로 소문 무서워 조용히 하자는 것인데, 솔직히 필자는 뭐가 두려운 것인지 잘 모르겠다. 논리적으로 작품을 평가해서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거친 후 합의하는 것이 뭐가 잘못일까? 설혹 안무가들이 반발하고 이후에 심사위원과의 사이가 묘연해진다면 그건 경연에 입하

는 바른 자세가 아니다. 과정이 공개되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으니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 경연 참가자들은 승복을 전제로 이미 출전한 것이니 말이다.

아마도 경연 후 많은 잡음은 논쟁의 내용에 승복 못함이 아니라 심사 방법에 대한 의혹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더욱 논쟁은 존재해야 한다. 말 나오는 것이 싫어 아예 말을 안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된다.

다득표 우선이나 결정은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만 동의한다면 수상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는 과반수(이번 전국무용제의 경우 4명) 이상만 한 작품에 우호적 이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논쟁 없는 심사에 조용히 던져진 4표가 최고의 예술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작 심사위원들은 논쟁을 안 하고, 무대 안에 있던 출연진들의 논쟁과 무성한 소문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 당연히 말 많은 행사가 된다. 기본적 논쟁의 형성과 공감,

금상을 수상한 충북
김진미무용단의
〈아이기〉

왼쪽 페이지
금상을 수상한 대전
최영란무용단의
〈천년가약〉





은상을 차지한 제주
김지희무용단의 <불휘>

오른쪽 페이지
은상을 차지한 경북
김동은무용단의 <마지막
비상구>

그리고 합의는 그야말로 경연의 기본이다.

우호적인 것과 친근함에 관하여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뭐도 예뻐 보인다는 속담이 있듯이 춤추는 무대도 사람 좋고 작품 친근하면 은근히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게 좀 과하면 열성적 팬으로 바뀐다. 사람과 작품에 대해 우호적인 것,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경연장에서는 유독 평소의 친근함과 사교성이 강조된다. 인지상정(人之常情), 즉 작품이 아니라 사람을 봐달란 이야기다.

물론 사람도 봐야한다. 그 사람의 전작들을 통해 그의 평소 작품성을 가늠하고 작품의 추이를 예측해야 한다. 하지만 평소 관계 운운하면 안 된다. 작품은 작품이다. 작품 속에 갑자기 사회적 관계와 이해관계가 뛰어 들어오

면 안 된다. 다행히 이번 전국무용제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냉철하게 행동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작품 역시 마찬가지다. 익숙한 것에만 우호적이라면 새로움이란 존재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과는 다른 방법과 시도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역으로 예술작품이라면 친숙함보다는 새로운 제안, 실험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친숙한 것을 누가누가 더 잘하는가의 대회가 아니라 누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고 효과적으로 실행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 장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작품이 경연이란 명분으로 모인 이유, 예술을 하는 이유의 답을 줄 수 있으니까 말이다.

간혹 어색하고 이상해 보여도, 심지어 비위가 상하고 불쾌하더라도 일단 이전과 다른 내

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 심사숙고해서 감상했으면 한다. 그런 후에 작가의 의도를 관찰하고 그 참여함을 가름했으면 한다. 너무 편하고 익숙한 것들은 때론 예술적 매너리즘과 보편화와 직결된다. 적어도 예술작품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가 우선되어야 하기에, 그리고 관객의 최소한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전국무용제를 보고

이제 더 이상 '경연용 작품'이라는 말이 나오지 말았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무가 스

스로도 비아냥거리며 격하시키고 있는 그 '경연용 작품'을 우선 만들지 말아야 한다. 타협의 결과요, 행사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춘 그 어처구니없는 작품들의 대량 생산에 제동이 걸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경연용 작품'에 대한 전면적 비판과 수정이 따라야 한다. 예술적·미학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공유해 국내에서 구태의연하게 진행되고 있는 무미건조한 대량생산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기준의 경연에서는 아마도 피나 바우쉬도 수상자 명단에 못 낄 것이며, 애당초 좋은



이제 더 이상 '경연용 작품'이라는 말이 나오지 말았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무가 스스로도 비아냥거리며 격하시키고 있는 그 '경연용 작품'을 우선 만들지 말아야 한다. 타협의 결과요, 행사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춘 그 어처구니없는 작품들의 대량 생산에 제동이 걸려야 한다.

The 14th Korean Dance Festival in JeJu



은상을 차지한 경기
조대식무용단의
〈남아있는 내일〉

오른쪽 페이지
은상을 차지한 전남
송준무용단의 〈그리운
연리지〉

작품 양산과 무용예술 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 역시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유연해야 할 예술 작품에 대한 잣대가 가장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한, 더욱이 여기에 개인간의 이해관계와 무용계라는 제도권 내에서는 작용되는 서열과 명망가 우대 원칙이 공존하는 한, 춤과 좋은 작품을 기대하고 극장을 찾은 관객과의 거리는 멀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쯤에서 내용에 의해 행사가 규정되는 것임을 감안해 전국무용제와 같은 경연의 기준이 얼마

나 무용계 내에서 비판 없이 수용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설혹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무용제의 성격을 규정짓는 요소임을 감안해 '경연용 작품'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적어도 그 범위 안에서서의 우열 가리기라면 그나마 정확하게 가리자. 쉽게 말로 하면 될 것을 억지로 입을 막고 몸부림치지만 정성과 열정, 최선의 여부가 기준이라면 말이다. 하지만 그 기준이 무대 위에 올려진 작품에만 직결되었으면 한다. 무대 밖에서의 정치적 영향력과 사회성

과는 무관하게 말이다.

무용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무대 밖에서의 권위와 영향력의 정도 차이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작품이 올려져 있는 무대에 보내는 환호와 찬사 속에서다. 그러므로 무대를 사랑하는 진정한 예술가라면 관객의 눈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좋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중요 행사다. 하지만 그 사업이 내용에 의해 의미가 퇴색하고 권위가 상실된다면, 이것은 내용을 규정짓고 담보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일조하는 운영의 주체자들의 책임이다.

아무리 형식과 시도가 좋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내용에 의해 그 존재성이 부각된다. 의



작품과 예술가에게 승복해야 한다.

맨 처음 언급했듯이 전국무용제는 문화예술적으로 낙후된 지방에서는 매우 환영받는 행사다. 서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무용 공연의 대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당 누려야하는 문화향수의 기회부여라는 점에서 훌륭한 사업이다.

상대적 문화소외감을 충족시켜주고 저렴한 가격에 춤 공연을 경험한다는 것은 해당

미 있는 내용과 폭넓은 공감 형성, 그리고 존경스러운 결단에 따라 심사 결과가 이끌어져야 전국무용제의 권위와 위상은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야말로 현재 전국무용제가 가장 먼저 선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싶다. 그래야 행사에 참가한 무용인 몇몇의 행사에서 벗어나 관객과 무용인 전체가 함께하는 진정한 전국무용제로 거듭날 테니까 말이다. 🌈